

태국 고등교육의 역사와 발전 과제*

박 경 은**

I. 들어가는 말

고등교육은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발전을 견인하는 중심축이다. 점점 복잡해지고 경쟁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세계 경제와 함께 많은 국가들은 노동 집약적 발전에서 지식 기반의 성장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높은 기술력과 지적 재산을 요구하는 새로운 경제 활동이 출현하고 있다. 태국에서도 경제 성장과 외국인 투자 유치에 중대한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 있어 고등 교육의 역할이 날로 중요시되고 있다(World Bank 2009: vii).

태국의 고등교육은 일부 엘리트나 관료 교육에 집중되어 있던 근대 고등교육의 한계를 넘어서 현대에 들어서는 고등교육 수혜층이 급증하여, 현재 태국교육부 고등교육위원회에 등록된 고등교육기관의 숫자가 170 개에 이르고 있으며, 2011년 기준 고등교육기관 재학생수는 2백만명을 넘어섰다(Office of Higher Education Commission 2011b: 175).

1970년대말에서 80년대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이루어진 양적 팽

* 이 논문은 필자와 한국외국어대학교 김영애 명예교수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수행한 정책연구 보고서인 “태국의 교육 및 학위제도 연구” 중 일부를 수정하고 보완한 것으로, 이 글의 책임은 필자에게 있음을 밝혀둔다.

** 한국외국어대학교 태국어과 조교수. kyungenpark@hufs.ac.kr.

창은 1990년대 말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질적 수준 향상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양적인 성장만은 지양하고 양질의 졸업생을 배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교육부의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2008년 태국 교육부가 발표한 제2차 장기 고등교육발전안의 내용은 이러한 노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2011년 태국 고등교육위원회는 교육 과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기준 미달의 학과와 과정을 통폐합 하는 등 고등교육 개혁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돈만 내면 졸업 보장”이라는 식의 학위 공장(Degree mill) 문제, 그리고 대학 자율화 과정에서 대두되고 있는 대학의 상업화 문제 등은 고등교육 발전의 현안으로 남아있다.

이 논문에서는 태국 고등교육의 과거와 현재를 간략히 짚어보기로 한다. 즉 과거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태국 고등교육의 변천사와 현 대학의 유형과 현황, 변화와 개혁의 노력을 조명하고, 태국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도전과 과제를 알아본다.

II. 태국 고등교육의 역사

태국에서 근대 이전의 교육은 주로 불교의 삼장을 읽고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졌다. 불경은 불교적 교리뿐 아니라 생활 지침과 생업, 호신 등 인간의 삶 전반에 관한 지식의 총망라로 여겨져 이를 탐구하였다. 아유타야 시대에 신권정치제가 도입되면서 교육의 목적이 불경을 배우는 것에서 관료가 되기 위한 것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근대와 현대를 거치면서 교육은 변화를 거듭해 왔다. 특히 민주주의가 도입된 이후 교육의 내용은 시대적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따라 발전했다. 즉, 대내적으로는 끊임없는 태국의 독립과 경제

적, 사회적 발전이라는 필요성과 당위성, 대외적으로는 급변하는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 속에서 평화적으로 공존하여야 한다는 명제에 부응하기 위한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1. 전통식 교육

태국의 전통식 교육은 본격적인 서양의 신식 교육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시대의 교육, 즉 쑤코타이(Sukhothai, 1238-1478년)시대, 아유타야(Ayutthaya, 1350-1767년)시대, 톤부리(Thonburi, 1767-1782년)시대, 그리고 랏따나꼬썸(Rattanakosin, 1782-1868년) 초기의 교육을 의미한다. 태국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최초의 교육은 람캄행(Ramkhamhaeng)대왕¹⁾의 문자교육이다. 1283년에 쑤코타이 왕국의 람캄행 대왕이 태국 문자를 고안하고,²⁾ 한 달에 네 번, 그믐날과 보름날, 그리고 상현달과 하현달이 뜨는 날 사원에서 백성에게 팔정도(佛敎)를 중심으로 불교교리와 윤리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관료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문자 교육을 겸하였다. 교육은 람캄행대왕이 직접 하거나 승려, 학식이 높은 사람이 주관하였다.

일반적인 태국인의 교육은 예로부터 가정과 사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가정에서 부모는 생활의 지혜 및 충성, 효도 그리고 인간간의 도리를, 사원은 문자교육과 불교교리를 주축으로 하는 윤리교육을 하였다. 남자아이들은 6-7세가 되면 보통 사미승으로 출가하여 승려를 스승으로 삼아 일정기간 공부를 한 후 환속하여 관료가 되

1) 람캄행대왕은 쑤코타이왕조의 3대왕으로서 신중한 외교, 제후, 군사작전 등을 통해 영토를 확장하여 쑤코타이왕조의 황금기를 이끈 왕으로, 공정하고 너그러운 통치로 부왕(父王)의 대명사로 추앙되고 있다.

2) 현존하는 람캄행대왕의 금석문 1호에 의하면 “예전에는 문자가 없었다. 람캄행왕이 이를 마음에 두고 관심을 가진 끝에 문자를 만들었으니 널리 사용하게 함이니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나 생업에 종사하였고, 일부는 환속하지 않고 승려로 살아갔다. 사미승 출가는 우리나라의 서당이나 서원교육에 비유될 수 있을 것이다. 20세가 되면 대체로 다시 비구로 출가한다. 이 성년출가는 우리의 성년식과 같은 의미를 지니며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숙한 남성, 즉 한 가정의 가장으로써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남성으로써의 자격을 갖추는 과정으로 인식되었다.³⁾

사원교육은 승려를 교사로 한 사원의 문자교육(읽기, 쓰기, 시작(詩作))과 산수, 불교 및 윤리교육을 의미한다. 태국식 의학, 기술, 점술, 약학 등도 교육하였다. 사원교육은 승려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여성에게는 이러한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⁴⁾ 주로 가정에서 예절과 집안 살림을 배웠다. 또한 일반 서민, 특히 기술자나 기능인의 자녀들은 도제식 수업을 받아 가업을 잇게 했다. 한편, 왕족 남성들은 왕궁에서 교사, 승려와 브라만으로부터 왕이 되기 위한 수업을 받았는데, 특히 불교교육과 문자교육 뿐 아니라 전술, 주문과 주문술 등 전술에 뛰어난 무인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았다.

17세기 중엽 나라이 왕(Narai, 1658-1688년)대에 서양과의 무역관계가 빈번해지면서 유럽의 상인과 가톨릭신부들이 무역과 포교를 목적으로 아유타야를 중심으로 상주하였고, 이어 아유타야 북쪽에 프랑스인 카톨릭 신부인 루이스 라노(Mgr. Louis Laneau)가 태국 최초의 서양식 대학인 “쌀라롱리안(Sala rongrian)”⁵⁾을 설립하였다. “쌀라롱리안”은 당시 프랑스 파리의 대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으로

3) 현대에 들어서 출가하지 않는 남성의 수가 많아진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결혼 전에 신랑의 성년 출가 여부를 중요한 자격요건으로 따지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부모님에게 공덕을 돌리기 위하여 기념일에 출가를 하거나,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이나 참회의 의미로 단기간 출가하는 경우도 많다.

4) 태국 불교에서는 승려가 여성과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여 시주를 하거나 공양을 드릴 때에도 반드시 평신도 남성을 거쳐야 한다.

5) “쌀라(Sala)”는 ‘정자(亭子)’라는 의미이며 “롱리안(Rongrian)”은 ‘배우는 곳, 학당’이라는 의미이다.

운영되었는데, 과학이나 역사학, 지리학, 신학, 철학 등의 학문 뿐 아니라 라틴어, 프랑스어 등의 언어도 교육했다.

2. 서양식 교육제도의 전래 본격화

야유타야 왕조 말기 태국은 대내외적 정치 혼란과 이웃나라와의 전쟁, 왕조 교체 등으로 혼란이 계속되다가 현 왕조인 랏따나꼬신(또는 짝끄리, Chakkri)왕조 시대(1782-현재)에 들어서면서 점차적인 안정을 찾게 되었고, 이와 함께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금 화두로 떠오르게 된다. 야유타야 나라이왕 사후 정치적인 문제로 태국에서 모두 철수했던 외국인들이 라마2세 때(1805-1824년)부터 다시 태국에 상주하기 시작했다. 라마3세 때(1824-1851년)에 미국에서 온 기독교 선교단이 상주하면서 서양 문물이 급속도로 전파되었는데, 미국 기독교 선교사인 브래들리박사(Dan Beach Bradley M.D. 1804-1873)가 서양식 외과수술에 의한 질병치료법을 전파하고, 태국어 활판과 인쇄기를 전래함으로써(1836년) 태국어로 된 책의 대량 인쇄가 가능해졌다. 당시 왕족들도 서양문물에 관심을 가졌고, 일부는 영어를 공부하기도 했다. 브래들리박사는 태국 고전 작품을 인쇄하여 시판하기도 하고, 최초의 태국어신문 “방콕리코더(Bangkok Recorder)”와 영자신문 “방콕캘린더(Bangkok Calendar)”를 출간하여 신식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던 당시 지식인 계층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고, 아울러 태국 신식교육의 확대에 크게 일조했다. 왕자(승려)시절의 라마4세도 인쇄에 관심을 갖고 인쇄기를 도입하여 불경을 인쇄 보급하였을 뿐 아니라 선교사들로부터 다른 왕자들과 함께 라틴어와 영어교육을 받았다. 라마 4세는 영어를 통해 세계정세에 대해 눈을 뜨게 되었고 영어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절감했다.

특히, 라마3세 말기에 이미 미얀마와 말레이시아가 영국의 식민지로, 또 이웃의 베트남이 프랑스의 식민지로 전락하였고, 1855년 라마4세 통치 중(1851-1865) 영국과 우호통상조약을 체결하면서, 서양의 열강 및 미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후 태국은 근대화와 영어교육에 주력하였다. 이 시기부터는 왕족들이 외교사절이라는 이름으로 외국에서 상주하게 되었고 외국인들도 전보다 더 많이 태국에 상주하게 되었으므로, 서양의 신문물이 내외국인을 통해 본격적으로 태국에 도입되었다. 왕은 왕족의 영어교육을 위하여 “롱싸꾼루엥(Rong Sakun Luang[왕궁학교])”⁶⁾을 1862년에 설립하고 영국으로부터 영어교사를 초빙하여 왕족에게 신식교육을 처음으로 실시했다. 이를 본받은 관료들은 자녀들의 영어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기회만 되면 자녀를 해외로 보내 유학시켰다. 정부는 지도 읽는 법을 비롯하여 전술학, 서양식 조선술과 항해학, 기계학, 사진술 및 서양의학의 교육을 위해 관료를 해외에 파견하고 서양의 교사를 초빙하여 국내에서 교육하기도 하였다.

라마5세(1865-1910)는 근대화를 시작한 선왕의 뒤를 이어 태국근대화를 꽃피게 한 왕이다. 왕은 서양 제국주의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태국 전통식 교육의 우수성을 살리면서 신식 교육의 장점을 도입하여 당시 태국 현실에 맞는 교육제도를 만들고 지방으로 확대하는데 주력하였다. 또한 외국어 구사력을 지니고 서양의 정세에 밝은 공무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1868년에 영어학교와 1881년에 “롱리얀프라땀낙쭌언꼐랍(Phra Tamnak Suankularb School)[왕족 시중학교]”를 설립하였다. 한편, 서양식 교육에 대한 일반 서민의 요구가 증대하자 서민의 신식교육을 담당할 신식교육기관을 방콕과 대도시의 사원을 중심으로 설립하는 정책을 추진하

6) 당시는 태국어로 ‘학교’라는 단어가 아직 없었으므로 영어 ‘school’을 태국식 발음으로 ‘싸꾼’이라고 표기했다.

여, 1886년에는 30개교로, 그리고 1892년에는 방콕과 대도시 전역에 있는 사원으로 확대되었다. 신식교육이 확대되자 정부는 그 책임기관으로 교육국을 1887년에 신설했다. 교육국은 이후 1889년에 종교부로 예속되었다. 이외에도 라마5세는 1897년에 왕실장학금(King's Scholarship)을 제정하여 서민 출신 인재에게 외국유학의 길을 열어 주기도 했다.

영국에서 9년간의 유학 생활 후 즉위한 라마6세(1910-1925)는 태국발전의 근간이 신식교육에 있다고 판단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교육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였으며, 영국식 보이스카우트제도를 도입하여 “룩쓰어빠(Wild tiger)”와 걸스카우트에 해당하는 “넛나리(Girl guides)”를 창단하고 근대적인 학문과 민족주의 의식을 앞장서서 교육하였다. 앞서 1910년에 왕족관료 양성의 산실인 “시종학교”를 민간인에 확대하여 공무원을 양성하는 “룽리안카라차곤폰라르언(Civil Servant School, ‘민간관료학교’)”로 승격하는데, 이것이 이후 1916년에 태국 최초의 대학교인 쭈라롱껀대학교(Chulalongkorn University)로 승격되어 국제사회에 부응하는 인재 양성에 주력하였다. 또한 의무교육법을 제정하여 만 7-14세 아동의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하여 방콕 등 대도시에 거주하는 아동들은 신식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되었고, 이와 함께 사립학교의 수도 급증하였다. 한편, 지방이나 가난한 서민의 아동들은 대부분 학교에 다니지 않고 집안일을 도왔고, 전통적인 사원교육 역시 그대로 지속되었다.

3. 입헌군주제 도입 이후 고등교육 발전

라마7세(1925-1934)가 즉위한 후 태국은 세계공황의 여파로 경제적인 곤경에 처하게 되는데, 이와 함께 서구제국주의에 대한 비판과 국내외 지식인층의 정치적 각성 및 민주주의제도 도입에 대한 염원,

전제군주제 비판, 세계경제공황에 대한 정부의 비효율적인 경제정책, 그리고 교육확대로 인한 국민의 민주의식 고양 등 여러 요인이 기폭제가 되어 1932년 6월에 전제군주제가 붕괴되고 영국식 입헌군주제가 도입되었다.

이미 19세기 중엽부터 이루어진 문호개방정책으로 인해 태국에는 자본주의가 도입되었고, 아울러 경제적인 변화가 일고 있었다. 그 후 노예제와 서민들의 부역제 폐지(1905년)는 경제 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변화에 박차를 가해 태국사회에는 신식교육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 과거에는 관료가문의 자제들이 관료가 되기 위하여 학문을 하였으나 근대 이후에는 서민층의 교육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 신식교육이 개인의 장래를 보장하는 지표로 인식되었다. 의무교육이 본격화되고, 고등교육기관이 신설되었다. 특히 1934년 개방대학인 법정치학대학(현재의 탐마삿대학교)가 설립되면서 저렴한 등록금과 양질의 교육으로 지식인과 젊은이들 뿐 아니라 언론인과 작가, 교사들이 앞을 다투어 입학하였다. 또한 2차 세계 대전 이후 지역별로 균형 잡힌 국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지방 주요도시에 고등교육기관을 신설하여 지방 인재 양성은 물론 각 지역의 문화와 교육의 중심지로 삼는 정책을 표방하면서 북부의 치앙마이대학교(Chiangmai University, 1964년 설립), 동북부의 칸깐대학교(Khonkaen University, 1964년 설립), 그리고 남부의 송클라대학교(Prince of Songkla University, 1967년 설립)가 설립되었다.

이 밖에도 행정전문대학원 니다(National Institute of Development Administration, NIDA)를 1966년에 설립하고, 1967년에는 공학부문의 동남아시아조약기구(SEATO) 대학원으로 아시아공과대학(Asian Institute of Technology, AIT)을 방콕에 유치하여 전문 고급인력을 양성했다. 또한 1969년에는 씨리랏병원(Siriraj Hospital) 소속의 팻타야건의과대학(Paethayakorn School)을 마히돈대학교(Mahidol

University)로, 1974년에는 교사양성학교와 사범대학을 합병하여 씨나카린위롯대학교(Srinakharinwirot University)로 승격하였고, 톤부리 기술대학(Thonburi Technical Institute, 1960년 설립), 태국-독일 기술대학(Thai-German Technical College, 1959년 설립) 그리고 논타부리 통신대학(Nondhaburi Telecommunications College, 1960년 설립)을 킹몽꿏공과대학(King Mongkut's Institute of Technology)이라는 이름으로 통합하여 주요 지역에 두었다.

1969년에는 고등사학교육법을 제정하여 사립학교의 설립기준을 제도화하였다. 상기 법은 1979년 사립대학법으로 개정되었다. 또한 국민들의 뜨거운 고등교육열에 부응하기 위해 최초의 개방대학인 람감행대학교(Ramkhamhaeng University, 1971년 설립)를 설립하여 교육 기회의 확대를 도모하고 평생교육 개념을 실현했다. 이어서 개방대학교이자 방송통신대학교인 쑤코타이탐마티랏대학교(Sukhothai Thammathirat Open University, 1978년 설립)를 설립하여 도서지역의 학생들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확대했다.

1972년에는 고등교육기관과 정부와의 긴밀한 관계를 도모하는 반면 태국의 대학 및 대학교의 교육 전반을 감독하고 견제하는 기관으로 국립대학교위원회(The Office of State Universities)를 설립하여, 국공립대학교는 물론 사립대학교도 관장하도록 했다. 이후 70년대 후반부터 기존의 국공립 및 사립전문대학이나 기술학교를 종합대학으로 승격하였고, 1990년대 초에는 방콕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의 지방캠퍼스를 독립 종합대학교로 승격하였으며, 이와 비슷한 시기에 태국의 각 쟁왓마다 있던 “위타알라이 크루(Witthayalai khru, ‘College of Education’[교원대학])”가 4-5년제 종합대학교로 승격하여 “랏차팻대학교(Rajabhat University)”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면서 교과과정도 초등교육과정 외에 관광경영, 호텔경영, 또는 무역행정 등으로 확대하여 교육의 폭을 넓히고 실용화하였다. 또한

전문기술이나 공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랏차몽콘대학법을 제정하고 태국 내 기술대학을 통폐합하여 4년제 “랏차몽콘기술대학(Rajamangala Institutes of Technology)” 설립하였다.

4. 태국 고등교육의 최근 동향

1985-1995년 사이 10%를 상회하는 태국의 급격한 경제 성장으로 중산층이 늘어나고, 산업현장에서도 고등교육을 받은 인재가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급격한 경제·사회적 성장과 더불어 1997년의 경제 위기 또한 교육개혁에 박차를 가하게 하였다. 더 이상 태국이 저임금을 무기로 하는 국가가 아니라 국제무대에서 선진국과 경쟁을 해야 하는 입장이 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산업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연구력과 기술력의 발전이 요구되면서 태국 정부는 인적 자원과 교육수준의 증진을 위해 1999년 교육개혁을 단행하게 되었다. 아울러 교육경영상의 구조적 변화, 교육의 지방분권화 및 활성화, 교육행정의 합리화와 재가동을 도모하였다. 교육종교문화부는 “모두를 위한 교육, 교육을 위한 모두(Education for All and All for Education)”를 표방하며 태국종교문화교육의회(National Council for Education, Religion, and Culture), 초등교육위원회(The Commission for Basic Education), 고등교육위원회(The Commission for Higher Education), 그리고 종교문화위원회(The Commission on Religion and Culture)를 산하에 두고 아울러 태국국공립대학교의 재정과 행정상의 자율성 보장과 초등6년-중등3년의 9년 의무교육 및 고등학교과정 무상교육을 과감하게 단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교육 내용과 방법도 교사 중심의 교육에서 학생 중심의 교육으로 발전시켰으며 학생들의 창조력과 고차원적인 사고력을 기르는 교육을 강조했다. 이외에 과학과 기술 분야의 인재를 중점으

로 양성하기 위한 R&D의 일환으로 박사 과정생을 위한 장학금제도를 조성하였고, 학위과정도 1997년부터 20년 사이에 약 5,000(1단계:1997-2011) - 20,000(2단계:2011-2021)개 과정으로 증강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현재 태국의 교육은 6-3-3-4제도로, 조기교육, 기본교육, 직업교육, 그리고 고등교육으로 나뉜다. 성인을 위한 비정규 교육과정은 평생교육의 개념으로 지역단체의 교육센터,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주로 이루어진다.

Ⅲ. 태국 고등교육기관의 종류 및 현황

1. 태국고등교육위원회와 산하교육기관

1972년 총리실 산하 대학성이 신설되어 약 30년 이상 태국고등교육기관을 관장하다가 탁싌 친나왓(Thaksin Shinawatra) 정부 집권 당시 교육 개혁을 목적으로 전면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하면서 대학성은 2002년 고등교육위원회(Office of Higher Education Commission, OHEC)로 개편되었다. 현재 태국의 국공립 및 사립 고등교육기관은 교육부 산하의 태국고등교육위원회의 관리감독 하에 있다. 교육부 외에 다른 행정부도 고등교육기관을 두거나 관장하고 있는데, 국방부는 삼군사관학교를 비롯하여 하사관학교 및 참모학교 등 필요한 전문직, 간호대학, 의과대학, 군악대학, 기술대학을 산하에 두고 있다. 보건부 역시 간호대학, 위생대학을, 통신부는 철도학교, 체신학교를, 재무부는 영사(세관)학교를, 농림부는 수리학교 및 임산학교를 관리 감독한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여타 행정부의 교육기관은 배제하기로 한다.

2011년 8월 현재 태국 고등교육위원회 산하에 있는 고등교육기관

은 총 170개로, 국립대학교 79개교, 사립대학 71개교 그리고 20개의 커뮤니티 대학 등이 있다. 태국 국립대학교 79개교에는 종전의 제도를 그대로 채택하고 있는 공립대학교(Public University) 16개교, 자율대학교(Autonomous University) 14개교, 랏차팻계열대학교 40개교와 랏차몽콘계열대학교 9개교가 포함된다. 각 고등교육기관의 종류 별 특성에 대해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국립(National) 고등교육기관

태국에서는 대학교를 크게 국립대학교와 사립대학교로 이분한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등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할 때 태국은 사립대의 비율이 국립대에 비해 훨씬 적은 편이며, 뿐만 아니라 전체 학생 중 사립대 등록율이 1998년도에 19퍼센트에서 2005년도에는 13퍼센트로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다(World Bank 2009: 35). 그 위상에 있어서도 국립대의 위상이 사립대보다 훨씬 높게 인식된다. 그 이유는 일차적으로는 국립대학교들이 오랜 역사와 전통을 이어오며 그 명성을 쌓아왔기 때문일 것이다. 국립대학교를 졸업한 인재들이 학교와 정부의 장학 지원을 받고 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자신의 소속 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하며 전통이 이어질 수 있었다. 또한 근대 이전부터 고등교육이 주로 엘리트 양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에서 비롯된 권위주의와 엘리트주의가 남아있는 것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 실제로 아직까지도 국립대학교의 학위 수여식에서는 왕족이 직접 학위증을 수여하기 때문에 학위수여식은 매우 신성하고 영예로운 행사로 여겨지고 있고, 학위수여식 사진을 가보로 여길 정도이다. 또한 국립대학교의 등록금이 사립대에 비해 4-5배가량 저렴한 것도, 선택할 수 있다면 국립대를 먼저 선택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최근 음악과 신문방송학으로 떠오르고 있는 랏셋대학교(Rangsit University)나 영화와 방송매체, 경영

학 등에서 주목받고 있는 방콕대학교(Bangkok University), 상업실무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태국상공회의소대학교(Thai Chamber of Commerce University) 등 일부 사립대학교들이 특성화하여 위상이 높아졌다고는 해도 아직은 유명 국립대학교의 명성에 크게 못 미친다. 일부는 처음부터 사립대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도 간혹 있으나, 보통 국립대학교는 전기 입시, 사립대학교는 후기 입시라는 인식이 있을 정도로 국립대학교를 지원해 원하는 학과(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들이 보통 입시방편으로 사립대를 거쳐 가거나 차선책으로 사립대에 입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립대학교에 가는 학생들은 소위 “실력이 좀 떨어지는, 있는 집 아이들”이라는 사회적 편견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국립대학교는 그 행정이나 운영방식에서 크게 자율대학교와 공립대학교의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으며, 공립대학교는 다시 일반 공립대학과 랏차팻/랏차몽콘대학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자율대학교(Autonomous University)

대학의 자율화는 고등교육의 독립과 자유, 유연성을 위하여 필수적인 변화의 추세이다. 태국어로는 “마하윳타야라이 나이 깜깡 킵랏 [정부 감독 하에 있는 대학교]” 또는 “마하윳타야라이 녀라뵘[시스템 밖 대학교]”이라고 하는 자율대학교는 공직 시스템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고등교육기관을 통칭하며, 대학교의 목적에 따라 운영에 있어 필수적인 지출과 교육의 질을 보장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매년 일정액의 보조금(Block grant)을 배당받을 뿐 나머지 예산은 스스로 책임지는 일종의 법인화의 개념이다.

태국에서 대학의 자율화에 관한 개념이 태동한 것은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대학기관을 관장하고 있던 기관은 “태국국립 교육위원회”로서, 여러 대학의 교수와 간부들이 대학의 자율화를 주

장하고 이에 대해 총리실 차관이 그 필요성을 인지하여 여러 번의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이어 당시 총리였던 타놈 깃띠카쩨(Thanom Kittikachorn) 원수에게 대학 자율화 원칙을 상정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대학성을 설립하여 총리실 산하에 있던 고등교육기관을 대학성 산하로 편입시켜 대학교의 행정(교무, 재정, 학생, 국제협력 등 모든 부분)을 감독 관장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교는 국가에 속한 공기관의 하나로서, 공공기관 관련법과 제도하에 있어 원활한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었다. 이에 대학자율화에 관한 노력은 계속 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자율화가 본격화되어, 쑤라나리대학교(Suranaree University of Technology)와 왈라이락대학교(Walailak University)의 두 신생대학이 자율대학교 체계로 설립되었다. 이 두 기관의 유연하고 원활한 행정운영은 다른 대학교들에 자율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절감하게 하는 효시가 되었다.

이어 1998년 경제위기 당시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대학의 자율화가 다시 떠올라 1999년도부터 정부는 대학의 신규 채용을 공무원 신분이 아닌 대학 직원으로 채용하도록 대학교에 권고하기 시작했다. 공무원이 아닌 대학 직원으로 채용되는 경우, 봉급율은 일반 공무원에 비해 높지만 복지는 공무원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차이가 있다.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이러한 변화는 탁썬 친나왓 정부에서 다시 한 번 시도되었으나 반대에 부딪혀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나 쑤리웃 쭤라논(Surayud Chulanont) 정부에서 당시 교육부 장관이 대학자율화 안건을 다시 상정하면서 최초로 2006년 11월 21일 쭤라롱껀대학교(Chulalongkorn University)와 탁썬대학교(Thaksin University), 킹몽꿏공과대학교 프라나컨느어(King Mongkut's University of Technology North Bangkok) 등 세 개 대학교를 필두로 기존 공립대

학의 자율화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이어 다른 대학들도 자율화를 시행해 현재 총 14개의 대학이 자율화를 거쳤으며, 그 외에도 많은 대학들이 자율대학교로의 변환을 추진 중에 있고, 장기적으로 태국 정부는 모든 대학의 자율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2) 공립대학교(Public University)

자율대학교와 달리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아 그 운영에 있어 정부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대학을 말한다. 단과대학이나 연구소 등의 개설이나 인력 관리 역시 정부의 규제를 받으며, 교수와 교직원들은 모두 공무원의 신분을 갖는다.

이에 속하는 대학교는 일반공립대학교 16개교와 40개의 랏차팍대학교, 그리고 9개의 랏차몽콘대학교로 세분할 수 있다. 방콕에 위치한 명문대학교인 탐마삿대학교(Thammasat University)와 쉐라빠껀대학교(Silapakorn University), 까셋삿대학교(Kasetsart University), 씨니카린위롯대학교(Srinakharinwirot University) 등과, 동북부 명문인 쁘껀대학교(Khonkaen University)와 남부의 명문인 송클라대학교(Prince of Songkla University) 등이 여기에 속한다. 그 밖에도 개방대학교 두 곳과 행정전문대학원인 니다(NIDA, National Institute of Development Administration)도 포함된다.

탐마삿대학교는 태국에서 두 번째로 설립된 대학으로서 70년대 민주화운동을 이끌며 국가 민주주의 발전사와 깊은 관계를 맺어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 쉐라롱껀대학교와 함께 입학점수가 가장 높은 대학으로 유명하다. 한편, 랏감행대학교와 쉐코타이탐마티랏대학교는 개방대학교로, 학생의 수나 학년의 제한을 두지 않고 학생을 받아 원격으로 수업을 실시하거나 학교에서 지정한 교재를 기본으로 학생이 스스로 학습하는 방식으로 교육하는데, 평생교육과 균등한 교육기회부여라는 이상을 실현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또한 행정전

문대학원인 니다는 아시아 교육기관들 중 상위에 랭크되고 있는 유명전문대학원으로 꼽힌다. 공립대학교는 정부의 예산 지원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자율대학교에 비해 행정의 절차가 비교적 더디거나 복잡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수익성 프로그램의 개설에 관한 학교의 부담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랏차팻대학교(Rajabhat University)는 태국 각 지방에 위치해 있던 교원대학이 종합대학교로 승격된 것이다. 최초의 교원대학은 1892년 아유타야에 설립된 현 프라나콘랏차팻대학교(Phranakhon Rajabhat University)로, 이후 전국적으로 교원대학 설립이 이어졌다. “랏차팻”이라는 이름은 현 라마9세인 푸미폰(Bhumibol)국왕이 1992년 하사한 것으로, “랏차팻”의 의미는 ‘왕의 학자’라는 의미이며, 지역 사회에 학문적 기여와 연구, 기술의 개발과 전수, 지역 문화예술의 보존, 교원의 배출과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어 2004년에 종합대학으로 승격되면서 현재 전국적으로 총 40개의 랏차팻대학교가 있다.

랏차몽콘기술대학교(Rajamangala University of Technology)는 1975년 “윗타알라이테크놀로지 래 아치와썩썩(Technological and Vocational College, ‘기술직업전문대학’)”으로 출발했다. 원래는 직업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에게 더 높은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설립된 것이었다. 이후 1988년도에 “Institute”로 호칭을 바꿨다가 랏차팻대학교의 승격과 함께 2005년 종합대학교로 승격하였다. 대학 행정의 유연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렇게 종합대학으로 승격하면서 랏차몽콘기술대학교는 기존의 과학과 기술 분야에 집중하여, 석사와 박사 과정을 개설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랏차몽콘기술대학교는 총 9개교가 있으나, 각 대학교마다 지방캠퍼스를 서너 곳씩 두고 있어 지방캠퍼스까지 합하면 39개나 된다.

최근 종합대학으로 승격하면서 랏차팍대학교와 랏차몽콘대학교는 새로운 도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여러 대학에서 지역의 요구에 부응하는 여러 석·박사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자율대학교로의 변환도 추진하고 있다.

(2) 사립(Private) 고등교육기관

사립대학의 설립은 그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다. 최초로 설립된 사립대학교는 파얏대학교(Payap University)로, 1974년에 치앙마이에 설립되었다. 역사가 짧은 탓인지 사립대학교의 명성은 국립대학교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사립대학의 일부 과정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특정 과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학교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생겨나고 있다. ABAC(Assumption University)의 경영학 석사(MBA)나 경영학 학사(BBA) 과정, 방콕대학교(Bangkok University)의 언론학이나 영화전공, 후어치야우대학교(Huachiew Chalermprakiet University)의 한의대와 약학대학 등이 그것이다. 사립대학교들은 각자 자신들의 강점을 특성화하면서 국립대학교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사립 종합대학교 이외에도 태국에는 최근 8개의 사립교육기관이 개설되어 있다. 이러한 사립교육기관들은 보통 특정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칸따나 인스티튜트(Kantana Institute)의 경우, 애니메이션과 영화로 유명한 칸따나사(社)에서 2010년 설립한 사설교육기관으로서, 태국에서는 아직 보편화되지 않은 학문 분야인 영화/애니메이션 학사 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또 태·일공업대학(Thai-Nichi Institute of Technology)은 태·일 기술진흥협회(Technology Promotion Association: Thai-Japan)가 2007년도 설립한 사립교육기관으로, 공학과 정보기술, 경영학 등 세계 학부에서 각각 학사와 석사 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한편, 사립종합대학교와 사립교육기관 이외에도 23개의 사립전문대학이 있는데, 이러한 사립전문대학은 보통 2년제로 태국 사회에서의 위상은 국립대나 종합대학 또는 일반 사립대학교에 비해서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3) 커뮤니티대학(Community College)

커뮤니티대학은 주로 지역의 이슈와 관련한 수료과정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전문대학이다. 커뮤니티대학은 제 3차 국가교육개발계획의 시행과 함께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해결하고 인재 개발을 도모할 목적으로 1977년에 푸켓커뮤니티대학(Phuket Community College)을 필두로 설립되기 시작하여, 현재 20개교가 운영되고 있다. 커뮤니티대학은 주로 2년 또는 3년 과정인 수료과정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4) 기타 유관기관

위에 언급한 교육부 고등교육위원회 산하 여러 고등교육기관들 이외에도 고등교육위원회의 예산 지원 하에 있는 유관기관으로 아시아태평양대학교류기구(University Mobility in Asia and the Pacific, UMAP), 동남아시아조약기구 고등교육개발지역센터(SEAMEO Regional Centre for Higher Education and Development, SEAMEO RIHED), 아시아공과대학(Asian Institute of Technology, AIT), 아세안대학연합(ASEAN University Network, AUN) 등이 있는데, 이 중 아시아공과대학(AIT)는 태국 교육부 산하 기관이 아닌 범정부적 국제교육기관으로, 1959년 동남아시아조약기구 공과대학원(SEATO Graduate School of Engineering)으로 설립되었다. 이후 1967년 현재의 이름인 AIT 로 이름이 바뀌었으며 크게 3개의 대학원, 즉 기술공

<표 1> 태국 고등교육위원회 산하 고등교육기관목록

구분	하위구분	기관명(영문)
국립 고등교육 기관		차울대학교 (총 14개 대학교) Chulalongkorn University King Mongkut's Institute of Technology Ladkrabang Mahidol University 등
	공립대	일반공립대학교 (총 16개 대학교) Kasetsart University National Institute of Development Administration (NIDA) Thammasat University 등
		랏차팻대학교 (총 40개 대학교) Chiang Mai Rajabhat University Suan Dusit Rajabhat University Suan Sunandha Rajabhat University 등
		랏차몽콘대학교 (총 9개 대학교) Rajamangala University of Technology Krungthep Rajamangala University of Technology Phra Nakhon Rajamangala University of Technology Thanyaburi 등
사립 고등교육 기관		사립종합대학교 (총 40개 대학교) Assumption University Bangkok University Rangsit University 등
		사립교육기관 (총 8개 기관) Chulabhorn Graduate Institute Kantana Institute Thai-Nichi Institute of Technology 등
		사립전문대학 (총 23개 대학) Bangkok Suvarnabhumi College College of Asian Scholars Saengtham College 등
		커뮤니티대학 (총 20개 대학) Pattanee Community College Songkhla Community College Yasothon Community College 등

출처 : 태국 고등교육위원회 홈페이지 (www.mua.go.th)

학대학원 (School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 SET), 환경, 자원 및 개발대학원 (School of Environment, Resources, and Development, SERD), 그리고 경영대학원 (School of Management, SOM) 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2년 현재 50개국 이상으로부터 2,30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고, 85개국의 18,000명의 동문이 배출되었다. 재학생은 전원 장학생으로, 국제기금으로 운영된다. 1989년에는 아시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라몬 막사이사이상(Ramon Magsaysay Award) 국제이해 부문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선술한 고등교육기관의 종류별 현황은 <표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2. 태국대학 재학생 수치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4년제 대학교는 전국적으로 아홉 개 학교였고, 전국 대학교 신입생의 수가 13,600명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꾸준히 늘어난 대학교의 수와 2000년대에 들어서서 정부가 고등인적자원을 배출하기 위해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진학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비 융자정책은 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진학률을 높이는 데 큰 작용을 했다. 태국 교육부 고등교육위원회 통계에 따른 2011년도 현재 태국 고등교육기관의 재학생 수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2011년 현재 총 재학생 수는 2백만 명을 넘어섰다. 학위 과정 별로 그 백분위를 살펴보면, 학사가 87.46%, 석사가 9.19%를 차지하고 있고 박사는 0.99%로 1퍼센트에 못 미치는 숫자이다.

<표 2> 2011년도 태국교육기관 및 학위별 재학생수

	학사 이하	학사	수료 과정	석사	고급 석사	박사	기타	총계
총 학생수	31,132	1,759,084	12,609	184,826	1,243	20,006	2,294	2,011,194
1.국립대	3,981	1,514,628	11,742	172,414	1,203	18,385	2,294	1,751,647
공립대	383	317,498	507	63,261	263	8,576	85	390,576
랏차몽콘	12,446	124,927	206	2,212	-	58	-	139,894
자울대	2,304	170,017	99	35,211	862	6,742	-	215,235
개방대	-	444,745	2,213	55,586	-	1,559	2,090	506,193
랏차팻	15,848	457,396	8,717	16,144	78	1,447	119	499,749
2.사립대	151	244,456	867	12,412	40	1,621	-	259,547
사립대	-	201,510	403	11,465	40	1,621	-	215,039
사립전문대	151	42,946	464	947	-	-	-	44,508

※ 비고 : 상기 숫자는 태국고등교육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일부 국립대학교와 사립대학교, 그리고 커뮤니티대학교 전체의 숫자가 누락된 것으로 실제 재학생 수는 표에 나타난 숫자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Office of Higher Education Commission 2011b: 176-177.

Ⅲ. 태국 고등교육 장기발전 계획과 최근 동향

유교의 영향으로 배움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동아시아 국가들과에 비하면 태국에서는 교육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강조하는 풍토가 조성된 것이 그리 오래지 않았다. 특히, 선술 하였듯이 옛날에는 사원 등에서 남아들을 대상으로 기초 지식과 불교 윤리를 교육하였고, 체계적인 교육이 시작된 것은 라마5세 시대부터로 불과 120년이며, 일반 서민들이 교육의 혜택을 받게 된 역사는 2차 대전 이후로 불과 5-60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이후 태국의 대학 교육 발전사를 사회적 측

면에서 살펴볼 때 발전보다는 후퇴에 가깝다는 비판이 주를 이루고 있다. 민주화 운동을 이끌던 의식 있는 대학생들의 “성난 젊은이 (Angry youngman)” 시대인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의 대학생은 식자층을 대변하며 사회 민주화의 선봉의 역할을 인정받았다. 이후 70년대부터 고등교육기관 재학생의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는데, 특히 70년 후반과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산업 발전과 더불어 기술과 직업 교육을 특성화한 대학들이 급성장하면서 대학 교육은 지식의 탐구보다는 실용성에 더욱 주력하여 발전하게 되어, 1971년에는 7만8천여 명에 그쳤던 전문학교 학생 수가 2000년도 이후에는 2백만명을 넘어섰다(World Bank 2009: 34). 이렇게 8-90년대를 거치며 학위에 대한 사회적 수요의 증폭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태국의 고등교육이 질 보다는 양에 주력한 “상업주의고등교육”이라는 오명과 비판이 점차 커진 것이 사실이다.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태국 역시 세계화라는 큰 흐름과 함께 태국을 시발로 한 아시아 경제위기, 일명 “뚝얌꿍 크라이시스 (Tom Yum Kung Crisis)”는 태국 사회가 인재의 부재라는 근원적인 문제를 직시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 특히 태국은 선진 기술을 가진 동아시아 국가들과 값싼 노동력으로 가격 경쟁력을 가진 동남아시아 이웃 국가들 사이에서 끼여 있는 일명 “넛크래커(Nut-cracker)” 효과로 위기에 봉착하였고, 고등교육의 질 향상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 것이다. 특히, 일자리를 얻기 위해 형식적으로 따는 학위가 아닌, 실제 필요한 지식과 실력을 겸비한 학자를 양성하기 위한 고등교육이 필요하다는 사회적인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고등교육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고의 필요성 또한 제기되었다. 이에 태국 교육부는 1990년 발표했던 고등교육 장기발전 15년 계획(1990-2004)에 이어, 고등교육의 질적 성장과 국내외적 변화 및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제2차 고등교육 장기발전 15년 계획(2008-2022)을 내

놓았다.⁷⁾

제2차 고등교육 장기발전 15년 계획(2008-2022)은 “교육이 국가 발전의 중심”이라는 기본 개념을 고수하며 “정책의 일관성과 수행의 다양성”을 지향하고 있다. 특히 고등교육과 다른 분야의 발전과의 병행을 추구하며 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시대적 요구를 분석하여 진보를 꾀하는 계획이다. 특히, 제1차 고등교육 장기발전 15년 계획(1990-2004) 과의 연속성을 위하여, 아래의 네 가지 분야를 강조하고 있다.⁸⁾

- ① 국립대학의 경쟁력 강화 또는 대학의 자율화(Public Autonomous University로의 변화)
- ②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전공과목의 개설로 국립대학의 수준을 높이고 강의, 연구 및 학술서비스의 질적 향상
- ③ 교육행정과 고등교육제도 발전에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 진흥
- ④ 사회적 수요나 필요성을 초과하지 않도록 학사 중복 배출 지양

특히 제2차 고등교육 장기발전계획은 고등교육의 전략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통합적 설계로,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된다. 하나는 인간의 삶과 세계, 나아가 태국과 태국 고등교육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환경과 관련하여 그 현상과 의미를 분석하여 고등교육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으로, 그 요인에는 인구변화, 에너지와 환경 변화, 향후 노동 시장과 취업 현황, 남부 이슬람 지역 등의 갈등과 폭력의 운영, 통치 권력의 분배, 청소년과 학자 그리고

7) 제2차 고등교육장기발전 15년 계획은 태국 고등교육위원회(Office of Higher Education Commission, OHEC)와 태국 지식네트워크연구소(Knowledge Network Institute of Thailand, KNIT) 가 전담하고 있다.

8) 제2차 고등교육장기발전 15년 계획의 세부 내용은 지식네트워크연구소 홈페이지(www.knit.or.th) 자료실에서 원본을 요약 인용한 것이다.

“셋타깃피피양”⁹⁾ 등이 있다. 태국 역시 아동과 청소년의 숫자가 점차 줄어들고 고령화 사회로 변화하면서 직업을 바꾸거나 새로운 직종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학습에 비중을 두며 고령자들이 사회경제적 생산성을 갖추도록 진흥한다. 또한 태국은 에너지 수입국으로 화석 연료의 사용은 공해와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고등교육이 에너지 절약과 환경 및 자연자원의 보호 등에 대한 인식을 만들고 인력을 배출해야 한다. 한편 국가 경제 구조 변화와 세계화, 테크놀로지와 정보화 등의 영향, 그리고 중국과 인도가 중심이 되는 “아시아의 시대”에 고등교육은 실용성과 기술력을 갖춘 양질의 인재 양성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이와 함께 각 지역 별로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통합적인 고등교육을 위하여 지역 간 공조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포스트모던(post modern)과 탈산업화(post industrialization)의 시대에 인문학 교육을 실시하여 학문의 내용과 과정을 함께 익히고 실무와 사회를 바탕으로 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이와 함께 중용경제철학과 관련하여 분석과 수행을 이끌고 새로운 구체적 지식을 창출하여 사회와 인간 삶에 이바지 하도록 한다.

다른 하나는 고등교육제도 내의 요소로 초등 교육이나 직업 교육 등 다른 단계 교육과의 연계, 고등교육 현안 해결책 모색과 대학의 특성별 분류,¹⁰⁾ 굿거버넌스(Good governance)를 통한 대학위원회

9) 태국어로 “셋타깃피피양(Sufficient Economy)” 이라고 하며, 한국어로는 중용경제 철학으로 번역할 수 있겠다. 현 국왕인 푸미폰 국왕이 70년대말부터 고안하기 시작하여, 경제 위기가 덮쳤던 9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주요 내용은 태국 고유의 경제구조를 지키면서 세계화에 부응할 수 있다는 개념을 배경으로, 생산과 소비의 균형점을 찾음으로서 가정, 지역사회, 국가와 세계의 네트워크 속에서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특히 지방 농민들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태국 뿐 아니라 UN 등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그 실효성에 관한 비판적인 시선도 있다.

10) 전국의 대학을 커뮤니티대학, 4년제 및 인문학 특성화대학, 과학 및 기술 특성화대학, 연구 및 대학원 특성화대학의 네가지 종류로 분류하고 있다.

행정력 보강, 연구력 보강과 연구성과평가(Research Assessment Exercise, RAE)의 활용, 다자 형태의 공조 매커니즘 등을 통한 국가 연구 경쟁력 향상, 실적 위주(Performance Based)의 예산 배정과 고등교육 기금 조성 및 재정 자율화 원칙 사용, 고등교육 관련 인력개발, 고등교육 기관 간 네트워크, 남부 3개주 특별개발지역의 고등교육개발, e-Society/ e-Industry/ e-Commerce/ e-Education/ e-Government 전략 등 학습 인프라개발과 평생 교육의 실현 등이다.

제2차 고등교육 장기발전 15년 계획(2008-2022)은 시대적 및 국내외적 환경 변화와 세계화에 부응하고 고등교육의 질을 개선하려는 태국 정부의 노력으로 볼 수 있다. 대학의 자율화와 연구력 강화로 국제 사회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지역사회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도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며,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평생 교육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이 밖에도 태국 고등교육위원회는 교과과정 전면 개편 작업을 단행했다. 태국 고등교육기관은 매 5년마다 교과과정 개편 작업을 하는 것이 의무화 되어 있는데, 교육부 고등교육위원회 부사무총장 피니띠(Piniti Ratananukul) 박사에 따르면(2012.02.06. 인터뷰), 2012년을 기점으로 태국 전국의 고등교육기관의 교육과정과 학위과정의 대대적인 수정 보완작업이 진행되어, 수준 미달의 학과나 교과과정 다수가 폐지되거나 통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듯, 태국 정부는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끊임없는 개혁과 개편을 감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학위 공장 문제가 대두되는 등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에 관한 의문과 비판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IV.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태국 정부의 당면 과제

1. 부정학위 문제

부정학위라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취득한 학위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이다.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위조 학위일 것이다. 배낭여행족들에게 유명한 카오싼 거리에는 한화로 만 원 정도만 내면 국제학생증부터 국제운전면허증, 각종 학교의 학위증까지 즉석에서 위조하여 만들어준다. 예를 들면, 외국인이나 태국 교육기관에서 영어교사나 영어교수로 일하고자 하지만 필요한 학위가 없는 경우 카오싼 거리에서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다. 또한 최근 인터넷상에서 가짜 학위를 만들어 주는 경우도 많아졌다. 그러나 이러한 가짜 학위증은 수준 낮은 위조로, 외국인들의 흥미를 끄는 정도 혹은 외국인 배낭족들의 불법 행위를 돕는 수단 정도로 사용되었을 뿐 태국인들이 이러한 가짜 학위를 사용한 예는 없다고 한다. 또한 이런 가짜 학위는 해당 기관에 확인할 경우 그 진위 여부가 바로 확인되어 무효화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크게 물의를 일으키는 수준은 아니다.

또 하나는 논문 대필인데, 이는 태국 사회에서 암묵적으로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는 폐해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경제력이거나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돈을 주고 사람을 사거나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아랫사람에게 논문을 대신 집필하도록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태국 사회에 무형적으로 잔존하는 신분제도, 혹은 태국 사회의 저변에 깔려있는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관계를 통한 사회 계층제도 역시 이러한 논문 대필이 암묵적으로 용인되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개방대학교인 람캄행대학교의 경우 학교 앞에 많은 논문 대필 광고가 붙어 있

고 실제로 논문 대필이 공공연히 행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면 수업이 아닌 원격 수업이 이루어지는 개방대학교의 허점을 이용한 부작용으로 분석할 수 있다. 또 최근 인터넷상에 대필 광고를 내고 일을 받아하는 소위 “대필전문가”들이 늘고 있다. 그 이용료도 학위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 이만오천에서 오만바트 (한화 1백만원 - 2천만원) 까지 다양한데, 우리 돈 백만원정도에 학위 논문을 대필해 준다는 것은 태국 학생들에게 뿐 아니라 외국 학생들에게도 큰 유혹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적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처벌이 어렵다는 점에서 부정학위 문제의 잠재적 위험 요소로 볼 수도 있다. 특히, 학문적 소양이 부족한 질 낮은 학자일 뿐 아니라, 윤리적 소양이 부족한 양심 불량인 학자를 양산하게 되는 이러한 논문 대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태국 교육부도 이러한 논문 대필의 문제를 오래전부터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적 중범죄”로 여겨져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마땅하다고 여기고, 이러한 문제의 예방을 위하여 논문 지도교수들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적발이나 처벌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태국은 고등교육, 특히 석박사 학위가 보편화된 역사가 길지 않고 교육수준의 편차가 커, 고학력자들의 특권 의식이 사회적으로 존재해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한 국립대학교의 위상이 사립대학교에 비해 월등히 높기 때문에 국립대학교에서의 부정학위 문제는 거의 없다는 것이 대부분의 학자와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그러나 일부 지방 사립대학교에서 최근 학위공장(Degree mill) 사건이 불거져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향후 부정 학위의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태국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 과정은 1980년대까지만 해도 불과 열 개도 되지 않는 국립대학교에서만 개설되어

있었고, 석박사 학위 과정이 급증한 것은 최근의 일이기 때문에 학위 공장의 문제는 지난 수년간 사립대학의 지방 캠퍼스가 급증하면서 생겨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최근의 “이싼대학교(E-sarn University)” 사건으로 이것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사건의 정황은, 지난 해(2011년) 초부터 동북부 지역에 위치한 사립대학교인 이싼대학교에서 학위 매매가 일어나고 있다는 제보가 있어 태국 검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2011년 4월 27일, 조사 결과 4명의 학생이 학교 측에 4만 바트에서 5만 바트(한화로 약 160만원-200만원) 가량의 돈을 내고 교원수료증을 샀다는 내용이 학생들의 자백과 증거 자료에 의해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또한 이후 11명의 학생을 같은 죄목으로 추가 소환하였다. 이에 이싼대학교 대학위원회는 당시 총장과 대학원 학장을 비롯한 관계자를 모두 무기한 정직시키고, 특별 조사반을 구성하여 집중 조사를 실시하여, 이싼대학교는 임시로 교육부 고등교육위원회의 관리감독 하에 있다가, 결국 10월 31일 자로 폐교 처리가 되는 것으로 결정됐다.¹¹⁾ 이로써 “이싼대학교 사건”은 일단락 지어졌지만, 이로 인해 태국의 부정학위 문제, 그 중에서도 학위 공장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라, 사립대학교는 물론 일부 국립대학교와 그 지방 캠퍼스의 수준 낮은 학위 또는 학위 매매 문제에 대한 의혹과 거센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와 함께 중부에 본교를 둔 모 대학이 남부 크라비(Krabi)에 있는 지방 캠퍼스에 박사 과정을 개설하면서 “돈만 다 내면 졸업 확실!(태국어로 ”짜이크롭 쭈내)“이라는 광고로 학생들을 유치한 것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되었다. 특히 이 학교는 2년 과정에 등록금이 6십 만 바트(한화 약 2천 2백 만 원)인데, 실제로는 등록금만 전액 납부하면 수업에 들어갈 필요도 없이 졸업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이렇듯 “이싼대학교 사건”으로 촉발된 부정 학위에 대한 사회적

11) Bangkok Post online(www.bangkokpost.com/news/.../fake-certificates-cost-e-sarn-rector-his-seat)

우려의 증폭으로 고등교육위원회는 “이싼대학교” 사건 관련 총장 및 관련인을 즉시 경질하고, 부정학위 취득 학생들의 학위를 모두 취소 조치할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함으로써 부정 학위 문제의 근절에 대한 태국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보이는 한편,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 사건에 투영된 태국 고등교육의 현 주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여전히 거세다.

2. 대학 자율화와 양적 성장 관련 이슈

최근 태국 대학의 자율화가 본격화되었다. 자율화는 양질의 교육 환경 개선과 연구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동아시아 국가들의 고등교육 발전에서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2007년 현재 태국 정부는 교육 부문에 20%의 예산, 즉 GDP의 4%를 배정하고 있으며 이 중 고등교육의 예산은 17.9%이다. 그러나 1997년 재정 위기를 겪으며 태국은 교육 예산을 8% 깎아내렸고, 재정 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오기까지 3년의 시간이 걸린 경험이 있다(World Bank 2009: 67). 뿐만 아니라 노동 집약적 산업국에서 기술 산업국으로의 발돋움이라는 과제는 교육과 연구 환경의 질적 수준의 향상에 대한 요구로 이어졌고, 이것은 대학의 자율화를 본격화하는 촉매제가 되었다.

현재 자율화는 재정적인 독립이 가능한 즉, 대부분 지명도가 높은 대학교에서 우선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율대학으로 전환한 대학은 정부로부터 최소한의 지원만을 받으며 스스로 학생선발권과 교과과정 개설, 교수와 직원의 봉급, 교수의 임용 등 인사권, 학교 운영 등등을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한다. 물론 교육부가 정하는 큰 범위 내에서 자율권을 갖는다.¹²⁾ 선술하였

12) 자율대와 비자율대(공립대)의 구분은 학교의 운영과 행정상의 구분일 뿐이며 실제 학교 이름을 거론할 때 “자율”이나 “공립”이라는 말이 붙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듯, 태국 정부는 최종적으로는 모든 국립대학교가 자율대학교로 변환하도록 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선술한 제1차와 제2차 고등교육 장기개발 15년 계획에서도 대학의 자율화 정책은 기본 정책으로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대학의 자율화에 대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대학의 자율화를 통하여 행정의 원활성과 유연성이 확보되고 정부의 부담을 줄이며, 각 대학교에서 인력시장에서의 수요에 부합하는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또한 민간과 동등한 수준의 봉급 제공으로 인재를 끌어들이 수 있다는 장점은 인정하지만, 그에 반해 등록금이 오르면서 저소득층의 학생들에게 간접적으로 교육의 기회를 빼앗아 접근성을 저하하고 개인의 평등과 자유에 오히려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투자 대비 수익이 적은 단과대학이나 교육과정이 해체되거나 폐기될 수 있다는 점, 대학 행정의 투명성에 대한 우려, 그리고 근본적으로 대학이 수익성을 쫓아 대학교 본연의 목적이나 철학이 빛바래질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한 우려이다.

실제로 쯔라롱껀대학교를 비롯한 다른 여러 자율대학교에서는 최근 수익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 외국인이나 경제적으로 넉넉한 가정의 학생들을 겨냥한 이러한 프로그램은 보통 영어 과정으로 개설되며, 입학이 쯔라롱껀대학교의 다른 과정에 비해 비교적 쉽다. 그러나 등록금은 학기당 평균 15만 바트(한화로 약 6백 만 원) 가량으로 일반 국립대학원이 학기에 2-3만 바트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5-7배가량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남부 탁썬대학교의 인문대학 학장인 파이분 두영짚(Paiboon Duanjan) 교수와의 대화를 통해(2012.02.03. 인터뷰), 탁썬대학교 자

의 서울대학교가 자율화, 또는 법인화 하였지만 국립자율서울대학교 라고 부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학생들은 국립대학교나 아니냐를 구분할 뿐, 자율화를 했는가 안했는가는 관심이 없거나 알지 못하며 그 사실이 학교의 명성이나 위상이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올화 이후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파이분 학장은, 쫄라롱껀대학교나 마히돈대학교처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대학은 문제가 없겠지만 탁싰대학교처럼 규모가 작고 수익성 프로그램 운영에 제약이 있는 대학들은 자율화 이후 더 힘들어진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 자율화로 교수와 교직원들의 봉급은 기존의 1.5배 정도로 소폭 상승한 것이 사실이지만 복지 등은 대폭 줄었다. 오히려 결정권이 커진 고위 행정직들의 봉급만 대폭 올랐다. 또한 학생들의 등록금은 비싸지고, 학교는 수익성 프로그램을 찾아 학교 재정을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즉, 양적 성장만을 강조하고 있어 질적 성장은 등한시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최근 지방 교원양성 전문대학과 기술대학들이 종합대학교로 승격한랏차팻 계열대학교와 랏차몽콘 계열대학교 일부에서 기준에 미달하는 석박사를 마구잡이로 배출하고 있는 문제가 공론화되기도 했다. 일부 랏차팻대학교는 법학박사를 한 해에 삼백 명씩 배출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인지, 랏차팻대학교와 랏차몽콘대학교의 종합대학교 승격이 너무 시기상조였던 것은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또 4년제 국립대학이라고는 하지만 일부 사립대학교보다도 위상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입학시험은 일반 국립대학의 입시 전형이 끝나고 난 후에 보게 되는데, 시험도 거의 유명무실한 형편으로 재학생들의 수준도 기대 이하라는 평가가 많다. 현재 다수의 랏차팻대학교와 랏차몽콘대학교가 자율대학으로의 변환을 준비하고 있는데, 상업적 대학 교육이라는 비판을 면하려면 철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V. 결 론

태국은 고등교육이 현재와 같이 보편화된 역사가 그리 길지 않다. 지방의 경우 아직까지도 고등교육의 기회가 방콕에 비해 적은 편이다. 90년대 이후 많은 사립대학교가 생겨나고 또 최근에는 지방 교원전문대학과 기술전문대학이었던 랏차팍계열 대학과 랏차몽콘 계열 대학들이 종합대학교로 승격되면서 학생들의 고등교육기관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그 입학의 문도 더욱 넓어진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태국인들은 우리나라 못지않게 명문대를 선호하고 이것이 교육열 과열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명문대 선호 현상은 대학의 권위 의식으로 연결되어, 태국 명문대학교의 문은 좁고 입학이 힘들다. 최근 부정학위 문제와 일부 지방 사립대학교에서 학위 공장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지만, 정부의 단호한 조치가 있었던 바 부정 학위의 문제는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우려가 적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태국 교육부는 제2차 고등교육 장기개발 15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국내외 환경 변화와 세계화에 부응하고 보다 양질의 고등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태국 정부의 노력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공립대학의 비교적 빠른 자율화 전환은 태국 정부의 성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볼 때 수익성 학위 과정 개설과 수준 미달의 졸업생 마구잡이 배출 등의 문제는 대학의 상업성 비판으로 이어져 향후 태국 고등교육의 질적 성장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충분한 준비와 신중한 정책으로 자율화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현재, 고등교육 수혜자는 증가했지만 저소득층 학생의 비율은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다. 많은 고등교육기관들이 고등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방콕과 중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사회과학 분야 졸업생은 과잉 상태인 반면 과학기술, 공학 및 의학 관련 졸업생은 부족하여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World Bank 2009: 38-39). 이러한 접근성과 관련한 이슈들도 정부의 현안으로 남아 있다.

아세안 공동체로의 도약을 앞두고 주변 경쟁국들과의 공영과 선의의 경쟁을 위하여 대학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민간 부문과의 연계를 강화하며 주변국들의 교육 개혁의 선례를 참고하여 고등교육이 중심이 되는 혁신 체계를 강화하는 태국 정부의 노력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태국 고등교육, 질적 성장, 장기개발 15년 계획, 자율화.

〈참고문헌〉

- 김영애·박경은. 2012. 『태국의 교육 및 학위제도 연구』. 한국연구재단 정책연구 보고서.
- Bureau of Standards and Evaluation, Office of Higher Education Commission 2010. *Matrathan kan udommaseuksa lae kenmatrathan thi kiawkhong* (고등교육 기준 및 기타 관련 기준). Bangkok: Phappim.
- Duangduan, Pisalbutr. 1974. *Prawatkanseuksathai*(태국교육사). Bangkok: Mongkolkanpim.
- Krissanapong Kirtikara. 2001. "Higher Education in Thailand and the National Reform Roadmap." Invited Paper presented at the Thai-US Education. Bangkok. 9 January.
- Ministry of Education. 1976. *A History of Thai Education*. Bangkok:

- Ministry of University Affairs.
- Ministry of University Affairs. 1985. *General Information*. Bangkok: Ministry of University Affairs
- _____. 1995. *Thai higher Education in Brief*. Bangkok: Ministry of University Affairs
- Office of the Education Council. 2009. *Proposals for the Second Decade of Education Reform(2009-2018)*. Bangkok: Office of the Education Council, Ministry of Education.
- Office of Higher Education Commission. 2011a. *International Students in Thai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2010*. Bangkok: Ministry of Education.
- _____. 2011b. *Raingan prajam pii 2554(2011년도 연례보고서)*. Bangkok: Ministry of Education.
- Sinlarat, Phaithoon. 2003. *Sakhawicha thi peodsorn radap udommaseuksa.Phattanakhan nai rop 200 pii haeng krung rattanakosin(2325-2525)[고등교육 개설 교육과정 : 랏따나꼬신 200년사 1782-1982년]*. Bangkok: Chulalongkorn University Press.
- _____. 2011. *National Qualifications Framework for Higher Education in Thailand: From Research to Practice*. Bangkok: Chulalongkorn University Press.
- Syamananda, Rong. 1977. *Prawattisat thai nai Rabob Rattathammanoon(입헌체제 하의 태국사)*. Bangkok: Thai Watana Panich.
- UNESCO IBE. 2011. Thailand - *World Data on Education*. 7th Edition, (Updated version April, 2011). (http://www.ibe.unesco.org/fileadmin/user_upload/Publications/WDE/2010/pdf-versions/)

Thailand.pdf, 검색일, 2012.4.5.)

World Bank. 2009. *Thailand - Towards a Competitive Higher Education System in a Global Economy.*

(<https://openknowledge.worldbank.org/handle/10986/3133>,
검색일: 2012.10.15)

웹사이트

<http://studyinthailand.org/index.html> (태국 유학 정보 제공 사이트, 검색일: 2012.09.29)

<http://www.culi.chula.ac.th/tic/out.html> (까썸 쑤완나꾼, 쫄라롱껀대학교 전 총장, 태국 대학 자율화 관련글, 검색일: 2012.04.05.)

<http://www.opec.go.th> (태국 사립교육 진흥위원회 홈페이지, 검색일: 2012.04.05.)

<http://www.knit.or.th> (태국 지식네트워크연구소, 검색일: 2012.09.29)

<http://degreeddonline.com> (학위매매 사이트, 검색일: 2012.04.05.)

<http://www.mua.go.th> (태국 고등교육위원회 홈페이지, 검색일: 2012.04.05.)

http://www.mua.go.th/users/bhes/catalog_h/StdEdu/LawBse/03.PDF
(태국 고등교육위원회 학사 교육과정 관련 규정, 검색일: 2012.04.05.)

http://www.mua.go.th/users/bhes/catalog_h/StdEdu/LawBse/04.PDF
(태국 고등교육위원회 석박사 교육과정 관련 규정, 검색일: 2012.04.05.)

<http://www.kroobannok.com/50545> (위조 학위 관련, 2012.05.03일자 교육부 주의 권고 기사, 검색일: 2012.10.01.)

<http://transcript4fake.blogspot.com/> (위조 학위 매매 사이트, 검색일: 2012.04.05.)

<http://teerasak.rmutl.ac.th/kritsanapong1.pdf> (킹몽꿏공과대학 랏끄라방캄퍼스, 끏리싸나퐁 끼라띠껐 논문, 교육 개혁을 위한 위기, 과정 및 이념, 검색일: 2012.09.29)

<http://manager.co.th/Local/ViewNews.aspx?NewsID=9550000114738> (짜룬 유텡, 태국 교육의 위기 탈출을 위한 방안, Manager 온라인 신문 2012.9.18.일자 칼럼, 검색일: 2012.09.29.)

<http://www.unescobkk.org/education/resources/country-profiles/thailand/higher-tvet/> (UNESCO Bangkok, Education System Profile, 검색일: 2012.09.29.)

<http://www.kmutt.ac.th/pi/backup/fileKK/Higher%20Edu%20Reform%20Roadmap.pdf> (킹몽꿏공과대학 랏끄라방캄퍼스, Krissanapong Kirtikara, "Higher Education in Thailand and the National Reform Roadmap, 검색일: 2012.09.29.)

인터뷰

파이분 두영짱(남). 2012.02.03.. 태국 남부 국립 탁썸대학교 인문대학 학장.

피니띠 랏따나누꾼(남). 2012.02.06. 태국 교육부 고등교육위원회 부 사무총장.

(2012. 10. 14. 투고; 2012. 10. 23. 심사완료; 2012. 10. 23. 게재확정)

<Abstract>

History of Higher Education in Thailand and Challenges to Improvement

PARK Kyung Eu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ncient Thai Education was primarily conducted in the Buddhist temples and it was not until the seventeenth century when the first Western-style school was built in Thailand. The modern higher education, which used to be available only to the elite of the society or to governmental officials for training purposes, has become more open to the general population and, as a result, there has been a dramatic increase in the number of beneficiaries of modern higher education. Currently, the total number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that are registered with the Higher Education Commission at the Thai Ministry of Education amounts to 170, and more than 2 million students are enrolled i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as of 2011. During the wave of industrialization from the end of the 1970s through the 1980s, the Thai government focused on the quantitative expansion of its higher education. However, the focus shifted to fostering qualitative growth in higher education and producing graduates with a better quality of education after the government underwent an economic crisis at the end of the 1990s which

made it become keenly aware of the need for qualitative improvement in its education system. "The second 15-Year Long Range Plan on Higher Education (2008-2022)" reflects the Thai government's efforts to adjust Thai higher education to domestic and international circumstantial changes, and satisfy its need for globalization and provide Thai students with better quality higher education. However, some critics of the Thai government's plan for higher education fear that autonomization of universities can result in the commercialization of universities and the ill-prepared but profitable degree programs created by some universities which can produce subpar graduates, creating a major obstacle against qualitative growth of Thai higher education in the future. Therefore, in order to have qualitative growth in higher education that leads the nation's political, economic, societal and cultural development, it appears that it is necessary for the Thai government to arrange a more comprehensive and fundamental measure for those issues.

Key Words : Thai higher education, qualitative growth, 15-Year Long Range Plan, autonomization.